

《傷寒論》에 나타난 小便病證에 對한 考察

朴相業·金聖勳**·宋孝貞**

I. 緒 論

小便是人體의 津液 중 腎臟에서 濁한 것이 걸러져 膀胱을 통해 排出되는 것이다¹⁾. 津液은 體內에 存在하는 모든 正常的인 水液의 總稱으로 飲食物에서 化生되며 唾液, 胃液, 腸液, 關節腔속에 있는 滑液과 눈물, 콧물, 땀, 小便등을 포괄한다. 津液은 分布狀態와 性狀이 달라 津과 液으로 나누어 지는데, 津은 비교적 맑고 묽은 水液으로 肌表粘膜에 分布하여 肌膚 皮毛 및 眼耳鼻의 空竅를 潤澤하게 하고 血液으로 轉化하기도 하고, 液은 비교적 진한 水液으로 대개는 臟腑로 스며들어서 內臟을 滋養하고, 腦髓 骨格을 潤養하고, 關節을 滑利하며, 肌表를 潤澤하게도 한다. 津液은 脾가 胃로 하여금 津液을 行하고, 肺氣의 肅降과 宣發作用에 의해 水道가 通調되며 腎氣가 全身 水液에 蒸騰氣化 升清降濁하는 作用을 하여 生成, 運行, 排泄된다²⁾.

傷寒論의 原著는 傷寒雜病論으로 傷寒과 雜病의 두가지 部分을 包括하고 있었으나 當時의 頻繁한 戰難으로 因하여 原本은 散失되었고, 西晉의 王叔和에 이르러 다시 收集되는 과정에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나누어져 전하고 있는데, 六經辨證論治는 傷寒論의 特徵이자 眞髓로서 歷代醫家들의 끊임없는 研究가 이루어져 왔으며 여러학파가 형성되면서 특히 病理學과 診斷學의 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³⁾.

傷寒論에 언급된 小便病證은 '小便不利', '小便數', '小便色白'등이 있으며, 淋病도 언급되어 있다.

《金匱要略·消渴小便不利淋病脈症并治》에서 淋病의 概念을 “淋之爲病, 小便如栗狀, 少腹弦急, 痛引臍中”라 하고 具體的인 證治에 대해 다루고 있다⁴⁾.

小便의 排出은 津液과 腎陽의 氣化가 必要하므로 腎陽은 人體 陽氣의 바탕이 되고 腎은 水를 主管하는 臟腑로 小便의 量과 排出樣相은 津液의 量을 가늠해 볼수 있으며, 肺氣의 肅降作用으로 水道가 通調되므로 氣機의 作用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 알아 볼수가 있다. 傷寒論에서는 陽氣와 陰液의 狀態를 가장 重要視하므로⁵⁾ 汗出의 狀態가 중요한 觀察要素가 되며 또한 小便의 樣相을 살펴서 陽氣, 陰液, 肺, 脾, 腎등의 機能을 알수 있고, 病의 傳變과 豫後도 알수 있다. 따라서 六經으로 나누어진 傷寒論에 言及된 小便病證의 考察을 통하여 病理와 診斷의 要素로 삼고자 한다.

II. 本 論

【小便不利症】

太陽病

1. 溫病誤治로 인한 小便不利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若發汗已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身重 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若被下者 小便不利 直視失渡, 若被火者 微發黃色 劇則如驚癇 時瘦瘵, 若火熏之 一逆尙引日 再逆促命期. (6)

1) 東醫腎系內科學, p.9

2) 圓光大學校 傳統醫學研究所; 韓醫學概說, p.50

3) 傷寒論精解,

4) 金匱要略

5) 孟雄在; 韓醫學概說, 圓光大學校 出版局, p.25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本條는 太陽溫病의 辨證要點과 汗, 下, 火法을 잘못 쓸 경우의 變證을 記述한 것인데, 誤用하여 下法을 써서 津液을 亡奪하게 하여 水源이 枯渴되고 小便不利가 나타나며 精神이 昏憤하여 二便을 調節할수 없어 遺失不禁하고 陰精이 目으로 上注하지 못하므로 兩目이 直視한다.

2. 太陽中風에 陽虛를 兼한 漏汗症의 小便不利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湯主之 (20)

本條는 發汗過多로 인한 陽虛液脫의 證治를 言及한 것으로, 漏汗은 땀이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本證의 漏汗과 惡風은 단지 衛陽虛로 腎陽虛에 이른 것은 아니며, 소변보기가 어렵고 사지가 당기는 것은 잠시의 液脫이고 眞陰이 耗竭된 상태까지 이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四逆湯을 쓰지 않고 桂枝湯에 附子를 加하여 復陽固表하면 땀이 그치고 津液이 恢復되어 小便難과 四肢微急의 症狀이 낫는다.

3. 太陽中風에 脾虛水停을 겸한 小便不利
服桂枝湯 或下之 仍頭項強痛 翕翕發熱 無汗 心下滿 微痛 小便不利者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主之 (28)

本條는 水飲이 阻滯된 경우에 잘못 汗下하여 津液을 損傷시켰을때의 올바른 治法을 言及한 것으로, 水飲이 停留되어 있으므로 利水하고 津液이 損傷되어 있으므로 益陰하는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을 使用하여 利水治飲作用을 強化하고 益陰效能도 있어 水飲이 除去되면 모든 症狀이 사라진다.

4. 外寒內飲의 小便不利
傷寒 表不解 心下水氣 乾嘔發熱而欬 或渴 或利 或噎 或小便不利少腹滿 或喘者 小青龍湯主之 (40)

傷寒表證에 水氣를 兼한 경우로 心下水氣는 胃脘部에 陰邪가 있는 것이고, 水飲이 中氣를 阻滯시켜 胃氣가 逆하므로 乾嘔하고, 水氣가 肺를 侵犯하여 肺가 宣降하지 못하여 咳嗽하고, 水飲의 邪氣가 氣를 따라 升降하여 口渴, 泄瀉, 噎症, 喘症, 小便不利, 少腹滿등의 症狀이 생긴다.

5. 膀胱蓄水症의 小便不利
太陽病 發汗後 大汗出 胃中乾 煩燥不得眠 欲得飲水者 少少與飲之 令胃氣和則愈 若脈浮 小便不利 微熱 消渴者 與五苓散主之 (71)

本以下之 故心下痞 與瀉心湯 痞不解 其人渴而口燥煩 小便不利者 五苓散主之(156)

本條는 水氣의 停滯로 인한 痞證으로 瀉心湯을 써서 效果가 없으니 熱邪가 陷入하여 된 痞證은 아님을 알 수 있다. 渴症, 口燥, 小便不利등의 症狀을 볼 때 이는 蓄水症으로 津液이 下部에서 結聚하여 上升되지 못하므로 渴症과 口燥煩이 生成된다.

6. 火邪傷陰으로 인한 內熱證의 小便不利
大下之後 復發汗 小便不利者 亡津液故也 勿治之 得小便利 必自愈(59)

本條는 亡津液하여 小便不利하는 경우에 治療禁忌를 言及한 것으로, 大下後에 發汗하면 津液을 크게 損傷시킨 것으로 蓄水의 小便不利와는 性質이 완전히 다르며 利水法을 쓰면 안되므로 “勿治之”라 한 것이다.

太陽病中風 以火劫發汗 邪風被火熱 血氣流溢 失其常度 兩陽相熏灼 其身發黃 陽盛則欲衄 陰虛則小便難 陰陽俱虛竭 身體則枯燥 但頭汗出 劑頸而還 腹滿微喘 口乾咽爛 或不大便 久則譫語 甚者至噦 手足燥擾 捻衣摸床 小便利者 其人可治(111)

本條는 火劫發汗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辨證과 機轉 그리고 그 豫後의 推斷을 말하는 것으로 風과 火의 兩陽이 薰灼하여 迅速하게 陰傷火治證候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小便이 아직 順調로운 것은 津液이 완전히 枯渴된 것은 아닌 것으로 ‘其人可治’라 하였다. 熱熾津枯의 證候는 小便의 有無로 豫後의 吉凶 나뉘을 결정할 수 있다.

陽明中風 口苦 咽乾 腹滿 微喘 發熱 惡寒 脈浮而緊 若下之 則腹滿 小便難也(189)

陽明中風은 風熱의 邪氣가 原因이므로 처음 병들때부터 口苦咽乾의 少陽膽熱症狀이 兼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陽明熱이 壅塞하고 氣滯하므로 ‘腹滿微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發熱惡寒과 脈浮

而緊은 外部로 太陽表證을 兼한 것으로 病症이 비교적 複雜한 境遇로 陽明裏熱症이 있으므로 辛溫發表할수 없고, 熱症이 있어도 아직 實한 것이 아니므로 下法을 쓸수 없다. 下法을 쓰면 表邪가 內陷하여 腹滿이 심해지고, 陰液을 損傷하여 小便도 더욱 不利해진다.

7. 太陽病類似證인 風濕이 關節에 留着한 症의 小便不利

風濕相搏 骨節煩疼 掣痛 不得屈伸 近之則痛劇 汗出 短氣 小便不利 惡風 不欲去衣 或身微腫者 甘草附子湯主之(175)

汗出惡風 不欲去衣는 衛陽虛不固證이고, 短氣 小便不利는 濕邪內阻證이며 濕邪內阻하고 氣化失宜하므로 위로는 呼吸短促하고 아래로는 小便不利가 생긴다.

陽明病

1. 陽明濕熱發黃의 小便不利

陽明病 無汗 小便不利 心中懊憹者 身必發黃(199)

陽明病的 發黃의 原因은 濕熱鬱蒸으로 發生하는데, 無汗은 裏熱이 外越되지 못한 것이고, 小便不利는 裏濕이 下泄되지 못한 것이고, 濕熱이 습하여 鬱蒸不解하면 心中懊憹하고 더욱 發展되면 肌膚發黃하게 된다.

陽明病 被火 額上微汗出 小便不利者 必發黃(200)

本條는 陽明病에 被火發黃하는 것으로, 熱에 熱을 加하여 裏熱이 더욱 심해져서 熱이 裏에 鬱結되고 外越이나 下泄되지 못하여 위로 鬱蒸되므로 이마에만 약간의 땀이 난다.

陽明病 面合赤色 不可攻之 必發熱色黃 小便不利也(206)

陽明病에 얼굴이 붉은 것은 熱이 經絡에 鬱한 것으로 透達하지 못하여 上部로 熏蒸된 것으로, 內部에 燥屎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下할수 없고, 만약 下하게 되면 憤鬱之熱이 더욱 憤鬱되고 同時에 脾胃는 攻下劑에 손상되어 水濕이 아래로 運輸되지 못하여 小便不利가 생긴다.

陽明病 發熱汗出 此爲熱越 不能發黃也 但頭汗出身無汗 劑頸而還 小便不利 渴引水漿者 此爲瘀熱在裏 身必發黃 茵陳湯主之(236)

本條는 陽明濕熱이 鬱蒸하여 생기는 黃疸의 證治를 論한 것으로, 濕熱의 鬱蒸은 無汗과 小便不利가 主要條件이 되며 이때의 治法은 清熱과 利濕한다.

傷寒七八日 身黃如橘子色 小便不利 腹微滿者 茵陳蒿湯主之(260)

濕熱黃疸은 黃色이 鮮明하고 寒濕黃疸은 黃色이 灰暗하여 區別이 되는데, 小便不利와 腹滿의 症狀등 病勢가 裏部로 偏重되므로 茵陳蒿湯이 主治가 된다.

…若不結胸 但頭汗出 餘無汗 劑頸而還 小便不利 身必發黃也(134)

2. 三陽合病의 小便不利

陽明中風 脈弦浮大而短氣 腹都滿 脇下及心痛 久按之 氣不通 鼻乾 不得汗嗜臥 一身及面目悉黃 小便難 有潮熱 時時嘔 耳前後腫 刺之少差 外不解 病過十日 脈續浮者 與小柴胡湯 脈但浮 無餘證者 與麻黃湯 若不尿 腹滿加讎者 不治(231)

本條는 三陽合病이라는 見解와 少陽陽明의 熱盛으로 經氣가 鬱閉되어 邪氣가 도쳐로 달아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病症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本條와 같은 三陽合病의 治法은 陽熱한 邪氣를 急히 清泄해야하고 解表와 攻裏도 모두 마땅치 않으므로 먼저 刺法을 使用하여 經絡에 鬱閉한 熱을 清泄한다.

3. 陽明腑實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의 小便不利

得病二三日 脈弱 無太陽柴胡證 煩躁 心下鞭 至四五日 雖能食 以小承氣湯 少少與 微和之 令小安 至六日 與承氣湯一升 若不大便 六七日 小便少者 雖不能食 但初 頭鞭 後必瀉 未定成鞭 攻之必瀉 須小便利 屎定鞭 乃可攻之 宜大承氣湯(251)

煩躁와 心下硬이 있으므로 이것은 腸에 燥屎가 없는 것이고, 단지 胃氣가 壅滯된 것이다. 本條는 證이 實하고 脈이 虛할 경우 小承氣湯의 적절한

給藥方法에 대한 內容과 小便을 參考하여 大承氣湯의 使用與否를 決定하는 內容으로 大便을 못보고 小便이 적으면 비록 飲食을 먹을수 없어도 大劑로 下할수 없고 반드시 小便이 利하여야 糞便은 완전히 燥硬해져 攻下할수 있다.

4. 陽明中寒에 胃陽이 不運하는 小便不利

陽明病 若中寒 不能食 小便不利 手足澼然汗出 此欲作固瘕 必大便 初鞭後溏 所以然者 以胃中冷水穀不別故也(191)

本條는 陽明中寒으로 固瘕가 되려는 證候와 病理的 機轉을 말한 것으로, 胃中の 虛冷으로 膀胱氣化의 失常으로 小便이 不利하며, 이는 承氣湯類와 鑑別要點이 된다.

5. 陽明中風에 風濕이 相合하여 發生하는 小便不利

陽明病 欲食 小便反不利 大便自調 其人 骨節疼 翕翕如有熱狀 奄然發狂 澼然汗出而解者 此水不勝穀氣 與汗共併 脈緊 則愈(192)

本條는 水濕이 表分에 鬱滯하여 狂躁하다가 汗이 나면서 풀리는 病理機轉에 대해 說明한 것으로 水邪가 關節로 들어가면 疼痛을 일으키고 肌表에 鬱滯하면 조바심으로 熱에 들뜬 것 같은 樣相(翕翕發熱)하고 水道의 氣化를 막게 되면 小便이 不利한다. 갑자기 狂躁不安한 症狀은 正氣가 奮起하여 邪氣를 몰아내려고 하는 標徵이고 흥건하게 汗이 흐르는 것은 正氣가 勝하고 邪氣가 退却하여 水邪가 汗을 따라 나가기 때문이다.

少陽病

1. 少陽病에 나타나는 小便不利

傷寒五六日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痞熱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欬者 與小柴胡湯主之(96)

本條의 小便不利는 小柴胡湯의 或然之證의 하나로 膽이 疏泄作用을 잃어 三焦의 通調水道機能에 影響을 미치면 水飲이 內停하여 小便不利하고 凌心하면 悸가 생기는 것이다.

2. 少陽兼 水飲의 小便不利

傷寒五六日 已發汗而復下之 胸脇滿 微結 小便不利 渴而不嘔 但頭汗出 往來寒熱 心煩者 此爲未解也 柴胡桂枝乾薑湯主之(147)

本條는 邪氣가 少陽에 들어가서 水飲이 停滯되고 陽이 鬱滯된 境遇의 證治를 言及한 것으로서 胸脇滿微結, 往來寒熱, 心煩은 邪氣가 少陽에 侵入하여 樞機가 不利한 것이고, 小便不利는 三焦의 決瀆이 失職한 것이고, 水飲이 蓄積되고 氣가 鬱滯되므로 津液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여 口渴이 생긴다.

3. 少陽에 煩驚譫語症을 兼한 小便不利

傷寒八九日 下之胸滿煩驚 小便不利 譫語一身盡重 不可轉側者 柴胡加龍骨牡蠣湯主之(107)

本條는 痰熱이 內蘊하여 三焦가 鬱滯된 境遇의 證治를 言及한 것으로, 小便不利는 三焦의 決瀆이 不行하여 나타난다. 邪熱이 內陷되어 熱이 津液을 消滅시켜 痰을 이루고 痰熱이 內蘊되어 三焦의 經氣가 모두 鬱滯되어 胸陽이 失轉되어 胸滿하고, 痰熱이 神明을 搖亂하므로 煩驚이 나타나고 위로 心竅를 蒙蔽하여 言語譫妄하게 된다.

太陰病

太陰 寒濕症의 小便不利

陽明病 脈遲 食難用飽 飽則微煩 頭眩 必小便難 此欲作穀疸 雖下之 腹滿如故 所以然者 脈遲故也(195)

本條는 陽明虛寒하여 穀疸이 생기려 할 때의 脈症을 言及한 것으로, 水穀의 濕이 中焦에 鬱積하여 皮膚에 黃疸을 發하는 것이 穀疸로서 中焦가 이미 阻滯하면 清陽이 不升하므로 頭眩하고 濁音이 不降하므로 小便難하다.

少陰病

1. 少陰病에 被火却傷津한 小便不利

少陰病 咳而下利 譫語者 被火氣劫故也 小便必難以強責少陰汗也(284)

本條는 少陰病에 火劫으로 傷陰할때의 辨證으로 腎은 二便을 主管하는데 少陰의 汗을 逼迫하여 津液이 損傷되고 化源이 이어지지 않아 小便難하게 된다.

2. 下焦不固便膿血의 小便不利

少陰病 二三日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下利不止 便膿血者 桃花湯主之(307)

少陰病이 2,3일에서 4,5일 지속되면 寒邪가 더욱 깊어 들어가 虛寒이 심해지므로 陽虛陰盛하여 腹痛하고, 脾胃陽氣가 虛하여 下利不止하고, 下利가 많아지면 津液이 損傷되어 小便이 不利하고, 陽虛氣陷으로 血을 統攝하지 못하여 大便에 膿血이 생긴다.

3. 少陰陽虛水泛症의 小便不利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四肢沈重 疼痛 自下利者 此爲有水氣 其人或咳 或小便利 或下利 或嘔者 眞武湯主之(316)

本條는 少陰病에 陽虛水泛한 境遇의 證治를 言及한 것으로, 水寒之氣가 밖으로 表를 攻하므로 四肢가 沈重疼痛하고, 안으로 腸으로 스며들어 腹痛下利하고, 上逆하여 肺를 犯하여 咳嗽하고, 中焦에 停滯되어 胃氣가 上逆하여 嘔吐하고, 下焦에 停滯되어 膀胱氣化가 不行하여 小便不利가 생긴다.

厥陰病

厥陰에 肝氣가 鬱結하는 小便不利

少陰病 四逆 其人 或咳 或悸 或小便不利 或腹中痛 或泄利下重者 四逆散主之(318)

本條는 肝胃의 氣滯로 陽이 鬱하여 厥이 되는 경우의 證治를 言及한 것으로 少陰病의 陽虛陰盛으로 인한 四肢厥冷과는 다른 것으로 肝胃의 氣滯로 陽이 裏部에서 鬱滯하여 四肢末端에 까지 이르지 못해 생긴다.

小便不利는 水氣의 不和로 인하고, 咳는 肺寒으로 氣逆한 것이고, 悸는 陰邪가 心을 每한 것이다.

【小便數症】

1. 太陽病에 誤治로 津液을 損傷하고 熱結하는 小便數

太陽病 若吐 若下 若發汗 微煩 小便數 大便因難者 與 小承氣湯 和之愈(250)

本條는 太陽病의 治療後 邪氣가 陽明에 전해져 實을 이루고 症勢가 비교적 가벼운 境遇의 治法으

로 吐下汗으로 津液이 損傷되고 邪氣가 裏로 傳해져 化燥하여 實하게되고 小便이 數하여 腸中이 燥하여지므로 大便結硬이 된다.

2. 脾約證의 小便數

趺陽脈 浮而澹 浮則胃氣強 澹則小便數 浮澹相搏 大便則難 其脾爲約 麻仁丸主之(247)

本條는 脾約證의 病理機轉과 主治方劑를 言及하였는데, 趺陽脈의 浮는 胃熱로 胃氣가 강한 것이고, 澹脈은 脾陰의 不足으로 脾는 弱한 것으로 강한 胃가 弱한 脾를 逼迫하여 脾가 묶여 動하지 못하므로 脾約證이 생긴다. 脾가 運化轉輸를 못하여 津液이 아래로 膀胱으로 내려가서 小便이 잦고 大便이 굳게 된다.

【小便色白症】

1. 少陰病에서 나타나는 小便色白

少陰病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也 虛故引水自救 若小便色白者 少陰病形悉具 小便白者 以下焦虛有寒 不能制水 故令色白也(282)

本條는 少陰虛寒症의 辨證을 말한 것으로 小便淸長은 下焦의 虛寒때문에 化氣制水하지 못하므로 색깔이 淸白하게 나타난다. 少陰病에 欲吐不吐함은 下焦의 陽氣가 衰微하여 寒邪가 上逆한 것인데, 下利하므로 腸胃가 비어있어 吐하려 하여도 吐할수 없다.

2. 熱厥 輕症의 小便色白

傷寒 熱少厥微 指頭寒 默默不欲食 煩燥數日 小便利 色白者 此熱除也 欲得食 其病爲愈 若厥而嘔 胸脇煩滿者 其後 必便血(339)

本條는 熱厥 輕症의 轉歸와 辨證인데, 熱少厥微는 熱이 微하고 厥도 微한 熱厥의 輕症으로 겨우 指頭만 寒한 것이고, 陽熱이 內鬱하여 胃氣가 蘇生되지 못하지 때문에 精神이 默默하고 食欲이 없으며, 陽鬱되면 반드시 퍼지려 하므로 煩躁不安이 나타난다.

恢復되는 機轉이라면 小便利하고 色白하여 裏熱이 除去되고 陰液이 恢復되어 먹고 싶어하는 것으로 胃氣가 調和된 것으로 나오려 하는 것이다.

【失溲症】

1. 溫病으로 인한 失溲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若發汗已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身重 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若被下者 小便不利 直視失溲, 若被火者 微發黃色 劇則如驚癇 時瘦癢, 若火熏之 一逆尚引日 再逆促命期.(6)

倉公傳에는 “使人不得前後溲”라 하였고, 또 “難于大小溲”라 하였다. 여기서의 ‘失溲’는 大小便의 저절로 흘러 나온다는 뜻이다. 溫病에 汗法을 써 熱이 深해져서 마치 불사른 것 처럼 된 것은 風溫이고, 만약 下法을 쓰면 津液이 亡奪되어 水源이 枯渴되어 小便不利가 나타나고, 精神이 昏憤하여 二便을 조절할수 없으면 遺失不禁한다.

2. 太陽病에 火法을 잘못쓴 경우의 失溲

太陽病二日 反躁反熨其背 而大汗出 火熱入胃 胃中水竭 躁煩必發譫語 十餘日振慄 自下痢者 此爲欲解也 故其汗從腰已下 不得汗 欲小便不得 反嘔 欲失溲 足下惡風 大便鞭 小便當數而反不數及不多 大便已 頭卓然而痛 其人足心必熱 穀氣下流故也.(110)

本證의 病機는 上盛下虛로 火邪가 中焦에 壅塞하여 發生되는 것으로, 中焦의 壅滯를 疏通시키면 上盛下虛는 없어진다. 大便이 通한 후에 陽氣가 下達하여 足下惡風이 足心發熱로 바뀌고, 上逆한 陽氣가 갑자기 下降하므로 머리에 돌연 頭痛을 느끼게 된다.

陽氣가 아래로 도달하지 못하여 생기는 足下惡風, 膀胱의 開闔이 순조롭지 못하므로 小便을 보고 싶어도 못보고 失禁하는 증상, 熱壅으로 인한 大便硬, 津液損傷으로 인한 小便不數不多등의 症狀이 主症이다.

3. 陽明經證에 나타나는 失溲

三陽合病 腹滿 身重 難以轉側 口不仁而面垢 譫語 遺尿 發汗則譫語 下之 則額上生汗 手足逆冷 若自汗出者 白虎湯主之(219)

本條는 三陽合病에서 陽明의 氣熱이 偏重될 경우의 治法과 禁忌例를 말한 것으로, 熱이 下迫하여 膀胱이 失約되면 遺尿하고, 津液이 熱에 逼迫

되어 外越하므로 自汗出하게 된다.

【淋症】

淋家 不可發汗 汗出必便血(84)

淋家라는 것은 平素에 小便淋瀝疼痛이 있고 아울러 항상 發作이 있는 患者를 말하는데, 대부분 腎陰虛와 膀胱蘊熱이 있는 경우로, 잘못하여 發汗하면 腎陰이 더욱 虛해지고 膀胱의 熱이 더욱 甚해져 邪熱이 血을 逼迫하여 妄行하게 하므로 尿血을 일으킬수 있다.

Ⅲ. 考 察

排泄이란 生體內에 생긴 不必要한 物質을 體外로 내어 보내거나 모든 生體가 生命活動을 誘導하기 위하여 老廢物이 아니더라도 生理的 均衡을 위하여 分泌하는 기능으로, 體內的 線에서 體內로 排泄되는 內分泌나 生食活動도 넓은 意味에서 排泄이다(6).

腎은 人體의 津液代謝를 調節하는 重要機關으로 脾肺와 相助하여 이를 修行하는데, 胃로 들어온 水穀은 脾氣에 의하여 肺로 上輸되고, 肺氣의 肅降作用에 의하여 腎臟으로 내려가는데, 腎臟으로 내려온 水液은 腎中陽氣의 氣化作用을 거치면서 清濁으로 區分되어 清者는 肺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全身으로 散布되고, 濁者는 膀胱을 통하여 體外로 排出되는 것이다.

津液代謝는 飲食物을 받아들이고 轉輸와 運化를 主管하는 脾의 機能과, 宣發을 주로 하며 水道를 通調케 하는 肺의 機能과 開闔을 主管하여 水液을 調節하는 腎의 機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三臟氣化라 하는데, 이의 根源은 命門, 腎에 있다. 浮腫이나 尿의 減少, 過多는 결국 脾, 肺, 腎 三臟에서 起因하며 주요하게는 腎臟에 原因이 있다.(7)

傷寒論은 六經 辨證의 綱領이요, 또한 論治의 準則으로, 六經으로 臟腑 經絡 氣血의 生理機能과

6) 東醫腎系內科學 p.5

7) 東醫腎系內科學 p.8; 漢醫學概論 p.109

病理變化를 概括하고 아울러 人體 抗病能力의 強弱, 病因의 速成, 病情의 進退緩急등의 要因에 根據하여 外感病의 變化過程에 나타나는 각종 證候에 대해 分析, 綜合, 歸納하고, 이에 따르는 病變部位·證候의 特徵·各各의 臟腑에 미치는 損傷의 程度·寒熱의 趨勢·正氣와 邪氣의 消長 및 治療方法과 處方등을 제시하고 있다⁸⁾.

小便의 排出은 津液과 腎陽의 氣化가 必要하므로 腎陽은 人體 陽氣의 바탕이 되고 腎은 水를 主管하는 臟腑로 小便의 量과 排出樣相은 津液의 量을 가능해 볼수 있으며, 肺氣의 肅降作用으로 水道가 通調되므로 氣機의 作用이 바르게 되고 있는 지 알아 볼수가 있다. 傷寒論에서는 陽氣와 陰液의 상태를 가장 重要視하므로 汗出의 狀態가 중요한 觀察要素가 되며 또한 小便의 樣相을 살펴서 陽氣, 陰液, 肺, 脾, 腎등의 機能을 알수 있고, 病의 傳變과 豫後도 알수 있다. 따라서 六經으로 나누어진 傷寒論에 言及된 小便病證의 考察을 통하여 病理와 診斷의 要素로 삼고자 한다.

小便不利

尿不利는 小便不利로 尿量이 적으면서도 非正常의인 排尿로 尿의 流出이 順理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排尿를 말하는 것으로 減尿, 無尿, 排尿困難, 頻尿, 難尿, 遲尿, 尿急, 再尿意, 細尿, 排尿時의 灼熱感등을 總稱하여 尿不利라 한다⁹⁾. 內經에 의하면 尿不利는 熱症으로 陽이 陰分으로 들어가서 膀胱이 熱하고 小便이 어려운 경우로 오직 陰分이 虛하므로 陽熱이 乘入한 所致이다. 小便不利는 排尿困難한 것으로, 甚하면 小便이 閉塞不通하나 尿道疼痛이 없는 症狀을 말한다. 癃閉라고 하기도 하나 癃과 閉는 程度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排尿困難하고 點滴而短少하며 病勢가 비교적 緩한 것이 癃이며, 小便不通, 點滴不出하고 病勢가 비교적 急한 것을 閉라 한다.¹⁰⁾ 小便不利는 內經에서는 <素問·厥論>¹¹⁾에 “溼洩不利”, <標本病傳論>에서 “小便閉” <水熱穴證>에서 “關門不利”라 하였

고, <金匱要略>에서는 小便難, 不得解 등으로 표현되었다. 小便不通은 膀胱에서 尿液의 排出이 困難한 것으로 癃閉에 가까우며 尿少或은 無尿하다. 小便不利는 病理的으로 肺氣失宣, 腎陽虛衰, 濕熱內阻, 氣滯濕阻로 나누어 진다¹²⁾.

傷寒論에서의 小便不利를 살펴보면 太陽病에서 言及된 것으로 溫病誤治, 太陽中風에 陽虛를 兼한 漏汗症, 太陽中風에 脾虛水停을 兼한 경우, 外寒內飲, 膀胱蓄水症, 火邪傷陰으로 인한 內熱證, 太陽病類似證인 風濕이 關節에 留着한 症에서 小便不利의 症狀이 있었다.

원래 水飲이 內停된 경우가 太陽中風에 脾虛水停을 兼한 桂枝去桂加白朮茯苓湯¹³⁾과 外寒內飲의 小青龍湯¹⁴⁾이고, 傷寒病의 進行過程에서 水飲內停이 나타나는 경우로 太陽腑證中에 膀胱蓄水症이 있으니 膀胱의 失常으로 小便의 排出이 안되어 小便不利가 나타날 때는 五苓散을 쓰고¹⁵⁾, 風濕이 關節에 留着되어 氣化가 障礙되어 小便不利가 나타나는 境遇에 甘草附子湯¹⁶⁾을 쓰고, 津液이 不足하여 小便不利가 나타난 경우는 太陽病에 漏汗으로 四肢微急하고 小便不利하는 桂枝加附子湯¹⁷⁾이고, 이 湯證은 太陽病에 發汗이 過多하여 陽氣가 不足하여 漏汗症을 형성하여 津液이 不足하고 陽虛하므로 氣化도 되지 않으므로 小便이 不利하게 나타나며, 溫病에 誤治로 下法을 써서 津液이 枯

9) 東醫腎系內科學, p.87
 10) 杜鎮京; 東醫腎系內科學, p.85
 11) 黃帝內經素問靈樞合篇
 12) 東醫腎系內科學 p.87 ; 中醫臨床鑑別大全 p.
 13) 服桂枝湯 或下之 仍頭項強痛 翕翕發熱 無汗 心下滿 微痛 小便不利者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主之 (28)
 14) 傷寒 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發熱而欬 或渴 或利 或噎 或小便不利少腹滿 或喘者 小青龍湯主之 (40)
 15) 太陽病 發汗後 大汗出 胃中乾 煩燥不得眠 欲得飲水者 少少與飲之 令胃氣和則愈 若脈浮 小便不利 微熱 消渴者 與五苓散主之 (71)
 16) 風濕相搏 骨節煩疼 掣痛 不得屈伸 近之則痛劇 汗出 短氣 小便不利 惡風 不欲去衣 或身微腫者 甘草附子湯主之 (175)
 17)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湯主之 (20)

8) 裴秉哲; 傷寒論總綱, 성보사, 서울, p2, 1996

渴됨으로 小便不利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¹⁸⁾, 火邪傷陰으로 津液을 損傷하여 小便不利가 나타나는 경우로 火劫發汗하면 風과 火의 兩陽이 薰灼하여 迅速하게 陰傷火治證候를 일으키는데 그 豫後에서 小便이 아직 順調로운 것은 津液이 완전히 枯渴된 것은 아닌 것으로 治療할수 있다¹⁹⁾. 亡津液하여 小便不利하는 경우에 治療禁忌를 言及한 것으로, 다시 發汗이나 利水法을 쓰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치료하지 말고 기다리며 스스로 小便이 회복되면 낫는다²⁰⁾. 이처럼 汗 下의 治法으로 津液이 損傷되고 熱이 있는 境遇는 治療에 주의 하여야 하며 小便의 狀態를 보아 豫後를 決定할 수 있다.

陽明病에서는 濕熱發黃, 三陽合病, 陽明腑實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 陽明中寒에 胃陽이 不運하는 때, 陽明中風에 風濕이 相合하여 發生한다. 濕熱發黃이라는 것은 裏部에 濕과 熱이 相合하여 薰蒸함으로서 水道가 通利되지 않아 小便이 나오지 않고 머리에 땀이 나는 특징이 있고, 脾臟이 主管하는 皮膚에 黃色을 發한다. 이 病은 自體의 發生하기도 하고, 陽明病에 被火發黃되는 境遇도 있는데²¹⁾ 이때의 治法은 淸熱과 利濕하면 되고, 茵陳蒿湯을 쓴다.

三陽合病의 小便不利는 不得汗하고 一身이 黃色에 小便難하고 潮熱등이 있고 太陽, 陽明, 少陽의 證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고,²²⁾ 陽明腑實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의 小便不利가 있으며²³⁾, 陽明에 陽虛로 寒邪가 直中하여 胃陽이 不運하므로 水液이 運化하지 못하므로 發生하는 境遇가 있다.

少陽은 樞機의 機能을 擔當하며 半表半裏에 位置하여 少陽症은 寒熱往來, 胸脇苦滿, 心煩喜嘔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少陽은 膽과 三焦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陰證으로 化하는 機轉에서 少陽相火

의 不及이나 三焦 決瀆機能의 損傷으로 말미암아 水道가 通利되지 못하여 小便不利하는 증상이 或然之症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少陽病에 나타나는 小便不利를 살펴보면, 96조에 少陽病에 或小便不利하는 症狀이 있으며, 이는 小柴胡湯의 適用對象이다²⁴⁾.

또한 少陽病에 水飲을 結하여 發生하는 小便不利가 있는데²⁵⁾ 이는 邪氣가 少陽에 들어가서 水飲이 停滯되고 陽이 鬱滯된 境遇에 해당한다. 또 少陽에 煩驚譫語症을 兼한 小便不利가 있는데 이는 少陽의 熱邪가 痰을 生成하고 痰熱이 心에 영향을 미쳐 譫語가 생기며, 三焦의 決瀆이 不行하여 小便不利가 생기는 것이다²⁶⁾.

太陰病이라고 생각될수 있는 것은 陽明病篇에

19)太陽病中風 以火劫發汗 邪風被火熱 血氣流溢 失其常度 兩陽相薰灼 其身發黃 陽盛則欲衄 陰虛則小便難 陰陽俱虛竭 身體則枯燥 但頭汗出 劑頸而還 腹滿微喘 口乾咽爛 或不大便 久則譫語 甚至嘔 手足燥擾 捻衣摸床 小便利者 其人可治(111)

20)大下之後 復發汗 小便不利者 亡津液故也 勿治之 得小便利 必自愈(59)

21)陽明病 無汗 小便不利 心中懊憹者 身必發黃(199), 陽明病 被火 額上微汗出 小便不利者 必發黃(200), 陽明病 發熱汗出 此爲熱越 不能發黃也 但頭汗出 身無汗 劑頸而還 小便不利 渴引水漿者 此爲瘧熱在裏 身必發黃 茵陳蒿湯主之(236)

22)陽明中風 脈弦浮大而短氣 腹都滿 脇下及心痛 久按之氣不通 鼻乾 不得汗嗜臥 一身及面目悉黃 小便難 有潮熱 時時噦 耳前後腫 刺之少差 外不解 病過十日 脈續浮者 與小柴胡湯 脈但浮 無餘證者 與麻黃湯 若不尿 腹滿加噦者 不治(231)

23)得病二三日 脈弱 無太陽陽明證 煩躁 心下鞭 至四五日 雖能食 以小承氣湯 少少與 微和之 令小安 至六日 與承氣湯一升 若不大便 六七日 小便少者 雖不能食 但初頭鞭 後必溲 未定成鞭 攻之必溲 須小便利 屎定鞭 乃可攻之 宜大承氣湯(251)

24)傷寒五六日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痞熱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欬者 與小柴胡湯主之(96)

25)傷寒五六日 已發汗而復下之 胸脇滿 微結 小便不利 渴而不嘔 但頭汗出 往來寒熱心煩者 此爲未解也 柴胡桂枝乾薑湯主之(147)

26)傷寒八九日 下之胸滿煩驚 小便不利 譫語一身盡重 不可轉側者 柴胡加龍骨牡蠣湯主之(107)

18)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若發汗已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身重 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若被下者 小便不利 直視失溲, 若被火者 微發黃色 劇則如驚癇 時瘦瘵, 若火熏之 一逆尙引日再逆促命期. (6)

言及된 한가지가 있는데, 太陰 寒濕症이라 할수 있다²⁷⁾. 이는 陽明虛寒으로 穀疸이 생성되는 과정으로, 水穀의 濕이 中焦에 鬱積하여 皮膚에 黃疸을 發하는 것이 穀疸로서 中焦가 이미 阻滯하면 清陽이 不升하므로 頭眩하고 濁音이 不降하므로 小便難한다. 이도 결국 中焦陽虛로 水濕이 停滯됨으로서 小便이 不利하는 것으로 要約된다.

少陰은 寒化症과 熱化症이 있는데, 寒化症에서는 腎陽이 虛하여 下焦가 虛冷하므로 下利하고, 手足이 冷한 증상이 있다. 寒性下利가 그치지 않으면 血絡을 溫煦固攝하지 못하여 손상되므로 便膿血중상이 나타나고 持續된 下利로 津液이 부족하여 小便不利가 나타나는 경우는 桃花湯으로 溫陽固攝한다²⁸⁾. 또 治法의 誤謬로 少陰에 火法으로 發汗하고자 하면 少陰의 津液이 外泄됨으로서 少陰의 氣化와 津液이 不足하여 짐으로서 發生하는 小便不利가 있다²⁹⁾. 또한 少陰陽虛水泛症의 小便不利가 있으니 陽虛로 水氣를 제어하지 못하여 四肢, 皮膚, 腸胃등으로 水氣가 넘치는 症狀이 發生하는데 이때는 眞武湯으로 溫陽制水한다.

厥陰病에서는 肝氣가 鬱結하여 發生하는 或然之症으로서 小便不利가 있는데, 이는 肝胃의 氣鬱로 인해 氣機가 不行하여 水分이 行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것으로 四逆散으로 氣機를 疏通한다³⁰⁾.

小便數은 一般的으로 腎이 虛冷하여 水氣를 溫化하지 못하여 發生되는 것이라 하는데, 傷寒論에서는 그러한 概念은 없고, 太陽病에 津液을 損傷시킨 경우에 陽明燥實症으로 化하려고 할 때 小便數한 症狀이 나타나는데³¹⁾, 그 機轉은 內部에 燥氣가 生成됨으로서 津液이 外部로 流出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脾約證에서 나타나는 小便數³²⁾도 胃氣가 强하고 脾氣가 弱함으로서 脾가 運化作用을 하지 못하므로 津液이 아래로 膀胱으로 傳하여 저서 나타난다.

小便色白은 傷寒論에서는 少陰病에 小便이 清長

하면서 色白한 虛寒證³³⁾과 厥陰病 熱厥에 熱이 除去되면서 色이 白色이 되면서 小便이 順調롭게 나와서 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³⁴⁾.

少陰病에서 나타나는 小便色白은 下焦의 虛寒때문에 化氣制水하지 못하므로 색깔이 清白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厥陰病에서 熱厥이 恢復되는 機轉이라면 小便利하고 色白하여 裏熱이 除去되고 陰液이 恢復되어 먹고 싶어 하는 것으로 胃氣가 調和된 것으로 나오려 하는 것이다.

失溲는 倉公傳에는 “使人不得前後溲”라 하였고, 또 “難于大小溲”라 하였는데, 여기서의 ‘失溲’는 大小便이 저절로 흘러 나온다는 뜻이다 溫病에 下法을 써 熱이 助長되어 精神이 昏憤하여 二便을 調節할수 없는 境遇에 遺失不禁하고³⁵⁾, 太陽病에 火法을 잘못 써 熱이 中焦에 壅塞되어 膀胱의 開闔이 順調롭지 못하므로 小便을 보고 싶어도 못보고 失禁하는 증상이 나타나며³⁶⁾ 三陽合病에서 陽明의 氣熱이 偏重될 때 이 熱이 膀胱을 下迫하여

28)少陰病 二三日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下利不止 便膿血者 桃花湯主之(307)

29)少陰病 咳而下利 譫語者 被火氣劫故也 小便必難以強責少陰汗也(284)

30)少陰病 四逆 其人 或咳 或悸 或小便不利 或腹中痛 或泄利下重者 四逆散主之(318)

31)太陽病 若吐 若下 若發汗 微煩 小便數 大便因難者 與 小承氣湯 和之愈(250)

32)跌陽脈 浮而澀 浮則胃氣強 澀則小便數 浮澀相搏 大便則難 其脾爲約 麻仁丸主之(247)

33)少陰病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也 虛故引水自救 若小便色白者 少陰病形悉具 小便白者 以下焦虛有寒 不能制水 故令色白也(282)

34)傷寒 熱少厥微 指頭寒 默默不欲食 煩燥數日 小便利 色白者 此熱除也 欲得食 其病爲愈 若厥而嘔 胸脇煩滿者 其後 必便血(339)

35)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若發汗已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身重 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若被下者 小便不利 直視失溲 若被火者 微發黃色 劇則如驚癇 時瘖瘖 若火熏之 一逆尚引日 再逆促命期。(6)

36)太陽病二日 反躁反熨其背 而大汗出 火熱入胃 胃中水竭 躁煩必發譫語 十餘日振慄 自下痢者 此爲欲解也 故其汗從腰已下 不得汗 欲小便不得 反嘔 欲失溲 足下惡風 大便難 小便當數而反不數及不多 大便已 頭卓然而痛 其人足心必熱 穀氣下流故也(110)

27)陽明病 脈遲 食雖用飽 飽則微煩 頭眩 必小便難 此欲作穀疸 雖下之 腹滿如故 所以然者 脈遲故也(195)

遺尿症狀이 나타난다³⁷⁾.

淋病은 傷寒論증에 한번 言及되었는데³⁸⁾, 淋家は 平素에 小便淋瀝疼痛이 있고 아울러 항상 發作이 있는 患者를 말하는데, 대부분 腎陰虛와 膀胱蘊熱이 있는 경우로, 잘못하여 發汗하면 腎陰이 더욱 虛해지고 膀胱의 熱이 더욱 甚해져 邪熱이 血을 逼迫하여 妄行하게 하므로 尿血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治法상에 發汗을 금하였다.

IV. 結 論

傷寒論증에 나타난 小便病證에 대한 考察을 통해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小便不利는 水飲이 內停된 경우, 津液의 損傷된 경우, 陽虛나 熱鬱로 氣가 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2. 小便數은 太陽의 誤下로 津液이 損傷되고 陽明腑實證이 生成되려 할 때와 脾約證에 나타났다.

3. 小便色白은 少陰病에 虛寒으로 化氣制水하지 못한 境遇와 熱厥이 恢復되는 過程에서 熱이 除去되면서 나타난다.

4. 失渡는 大小便이 遺失되는 것으로, 三陽病에 熱이 盛하여 膀胱에 熱이 전해져 失約하는 경우, 溫病을 誤下하여 熱로 인해 精神이 昏憤하여 二便을 主하지 못하는 境遇에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1. 陳國信 外; 傷寒論症狀鑑別綱要, 서울, 醫聖堂, 1994.
2. 張樹生 外; 中醫臨床大全(上),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8.
3. 姜鎮春, 金弘起; 傷寒學, 一中社, 서울, 1992.

4. 圓光大學校 基礎醫學研究部; 韓醫學概說, 서울, 永林社, 1997.

5. 張介眉 外; 人體排泄物異常證診斷治療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3.

6. 馬元臺張隱庵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篇, 台聯國風出版社, 中華62

7. 劉渡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8.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傷寒明理論, 미상

9. 文瀾典 外;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6.

10. 孟雄在; 傷寒論總綱, 益山, 圓光大學校出版局, 1992

11. 朴憲在; 傷寒論概論, 서울, 藥業新聞, 1995.

12. 蔡禹錫; 漢醫學概論, 서울, 大星文化社, p107-110, 1997

37)腹滿 身重 難以轉側 口不仁而面垢 譫語 遺尿 發汗則譫語 下之 則額上生汗 手足逆冷 若自汗出者 白虎湯主之(219)

38)淋家 不可發汗 汗出必便血(84)